

민생안정지원단, 먹거리 물가 점검을 위해 제과·제빵 및 식자재 유통·급식 업체 방문

- ‘학화1934베이스캠프’와 ‘천안시 농협조합공동사업법인’을 방문하여 최근 식자재 가격 인상에 따른 물가현황 점검 및 간담회 실시

범부처 민생안정지원단(단장: 장도환)은 7월 8일(수), 최근 계란 및 농산물 등 식자재 물가 상승에 따른 제과·제빵 및 급식 물가를 점검하기 위해 충남 천안시 소재 ‘학화1934베이스캠프’와 ‘천안시 농협조합공동사업법인 및 학교급식 지원센터’를 방문하고, 대한제과협회 천안시지부 및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등 관계자 등과 간담회를 개최하였다.

- ① 학화1934베이스캠프: 학화할머니호두과자 천안 4개 점포에 호두과자를 공급하는 공장으로 하루 평균 10만개의 호두과자 생산
- ② 천안시 농협조합공동사업법인: 천안 내 12개 농협이 공동출자한 비영리 법인으로, 급식사업(학교급식 701개교, 공공급식 50개 사업장)과 유통사업 운영 중

이번 현장방문은 최근 고환율, 원자재 가격 급등 및 기후변화 등으로 먹거리 물가에 대한 **상방압력**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, 현장에서 직접 점검하기 위해 이루어졌다.

민생안정지원단은 우선 ‘학화1934베이스캠프’를 둘러보며 1934년부터 4대째 가업을 승계 중인 조경찬 대표를 만나 제과·제빵 분야의 최근 생산원가 현황에 대해 전해들었다. 조 대표는 “최근 계란 등 원재료 가격과 인건비가 급등하여 호두과자 생산원가가 약 20% 상승하였지만 이를 소비자 가격에 즉각 반영하기 어려운 상황”이라며 애로사항을 언급하였다. 민생안정지원단은 또한 대한제과협회 천안시 지부 관계자 등과 간담회를 통해 최근 식자재

및 물류비 상승으로 인한 제과·제빵 분야의 생산비 및 판매가격 현황을 점검하고, 생산원가 절감을 위한 업계의 제안을 경청하였다. 관계자들은 특히 제과·제빵에 필수적인 계란의 안정적 공급이 중요함을 강조하였다.

이어 민생안정지원단은 ‘천안시 농협조합공동사업법인 및 학교급식지원센터’를 방문하여 홍승주 대표이사 및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관계자 등과 간담회를 갖고 식자재 가격 변동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였다. 홍 대표이사는 “채소 등 농산물 가격은 비교적 안정적이거나 계란, 닭고기, 돼지고기 등 축산물 가격 상승으로 원가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으로, 농가와 직접 계약재배 및 물품가격결정 분과위원회*에서의 가격협의를 통해 납품가격 변동폭을 최소화하고 안정적으로 학교급식 공급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”고 언급하였다.

* 천안시·교육청·영양(교)사·농가·학부모 등이 참여하며, 매월 협의를 통해 식자재 납품 단가의 최저가 또는 적정가 결정

장도환 단장은 “정부는 먹거리 물가 안정을 위해 농축산물 할인지원, 신선란 수입물량 확대 및 소상공인에 수입 신선란 공급, 할당관세 등 다양한 정책을 시행중”임을 언급하며 “앞으로도 재정·세제·금융 등 가용한 정책수단을 모두 활용하여 물가안정과 서민부담 경감을 위해 지속 노력할 것”이라고 강조하였다.

담당 부서	민생경제국 민생안정지원단	책임자	팀 장 최은경 (044-215-2861)
		담당자	사무관 황지현 (sk12@korea.kr)
			주무관 황정현 (ioiktWr79@korea.kr)

